

◎ 주지번(朱之蕃),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사조선록역주 4』, 소명출판, 2012) ~123쪽

1. 군사외교적 배경

- 명 신종의 황태자 제1자(=황장손) 탄생 조서 반포+칙유.
- 정유재란 종결(1598) 8년, 명군 철병(1601년) 5년 후이자, 일본과 강화/국교 재개, 제 1차 통신사(회답검쇄환사) 파견(1607) 1년 전.
-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¹⁾이 끝나고, 건주여진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해서여진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 조선 변경 위협.
- 정사 주지번, 부사 양유년. 전체 사행기간은 1606년 2월 3일~7월 7일 복명시까지 약 5개월. 조선 경내에는 39일 체류. 1606년 2월 3일 북경 출발, 3월 2일 산해관, 14일 요동, 23일 압록강 도하. 4월 10일 한성 입경, 열흘간 머문 뒤, 20일 출발. 5월 1일 의주, 2일 도강. (음력)
- 칙유의 내용: 임진왜란 후 3년간 왜의 동정을 직접 살펴오던 명이 그 임무를 조선에게 넘기는 칙유. 번병(藩屏) 조선에 대한 명의 신뢰, 안보 분담.

"지난번 왜정(倭情)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짐(朕)이 요동 진무(遼東鎮撫)의 차인(差人)으로 하여금 그대 나라에 가서 초탐(哨探)토록 하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독무(督撫)가 아뢰기를 '그동안 해상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다.'고 하니 관리를 파견하는 일은 한갓 번잡하게만 할 뿐이다. 그래서 그대 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탐보(探報)케 하여 접대하는 비용을 덜어주려 하니, 국왕은 때에 맞춰 엄격히 독려하고 힘써 착실하게 거행하라. 이에 멀리 정찰하고 은밀히 탐색하여 변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진강유격야문(鎭江遊擊衙門)에 보고하여 전보(轉報)하도록 하고, 만일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아무 때고 즉시 치보(馳報)하라."²⁾

2. 조선측 기록 (조선왕조실록)

- 1605년 12월 28일, 동지사를 통해 주지번과 양유년이 조선에 사행 음을 인지
 - 1606년 1월 23일, <삼정승·관반 이호민·원접사 유근 등과 중국 사신 영접, 북로남왜 방어, 진연, 중삭연 등 국사를 논의하다>³⁾
 - 선조가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좌의정 기자헌(奇自獻),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관반 이호민(李好閔), 원접사 유근(柳根)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윤방(尹昉), 기사관 서경우(徐景雨), 조사가주서(詔使假注書) 곽천호(郭天豪), 기사관 오익(吳翊)·유학증(兪學曾)과 함께 대책 회의
- "중국 사신이 나올 날짜가 아마도 머지 않았을 터인데 모든 일의 조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

1) 명 신종 만력 20년부터 28년(1592-600) 사이에 발생하였던 서북, 동북, 서남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3개의 전쟁. 몽골족 보바이의 반란(1592),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였던 임진왜란(1592-1598), 묘족 토사 양응룡의 반란(1599-1600)이다. 명나라는 3개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국력을 소모하였다.

2) 선조수정실록 40권, 선조 39년 4월 1일 기해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3) 선조실록 195권, 선조 39년 1월 23일 임진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가?"

- 선조 vs. 신료들 간에 창화외교(‘수작’)를 둘러싼 찬반 양론. 선조, “무릇 접대의 일이란 오로지 지성으로 할 따름이지 수작으로 승부를 겨루려는 뜻은 본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여도 따라갈 수 없다.”(선조) vs.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낼 적에는 반드시 문학을 하는 인사로 가려서 차출하므로 수작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으로는 창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심희수)

- 수작/창화, 음식, 풍속(여성의 坐市), 뇌물, 오는 길(참도), 짐꾼에 이르기까지 노심초사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 전일 조사가 나왔을 적에 대강군(擡扛軍)이 많이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한 백성이 무겁게 메고 쫓아다녔으니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북로 방어 문제: 1603년부터 북변 오랑캐 위협 증대, 1605년에는 홀추에게 첨지의 직첩을 주는 책봉책 시행4)

"근래 조사를 지대(支待)하는 일로 말미암아 북방에 대한 일은 마치 잊은 듯합니다. 이번에 장계를 보건대 저들의 사정이 전과 꼭 다릅니다. 선전관이 북에서 돌아오면서 비로소 홀추(忽酋)와 노토(老土; 야인여진)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 허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노토는 일찍이 노을가적(老乙可赤)과도 서로 통하였는데 또 홀호(忽胡)와도 서로 통한다는 말인가?"

"번호(蕃胡)가 진고(進告)한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번호의 진고가 믿을 만한가?"

"번호의 진고를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없었으리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진고한 말에 의거, 방어사에게 군사를 청하였는데 이수일(李守一)이 명천(明川)·길주(吉州)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명천에 머물러 형세를 보아 진퇴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상시와 같이 부실한 진고였다면 어찌 그렇게까지 하였겠습니까. 이미 첨병(添兵)하였으니 장관(將官) 등을 반드시 잘 뽑아 보낸다면 적이 나온다 해도 어찌 실패당하겠습니까. 대개는 선전관이 나올 적에 관찰사가 신에게 통지하기를 ‘군량을 이어대기가 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신들도 이 때문에 군량을 이어달 길을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계책이 떠오르지 않으니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적에게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허장 성세하여 우리의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를 첨가하기 어렵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도발해 온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노추(老酋)가 홀추(忽酋)와 서로 연대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일 노추의 차호(差胡)가 광녕(廣寧)에 들어갔을 적에도 이성량(李成樑)이 아주 후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아문에서도 일을 야기시킬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주문하면 여러 아문이 제대로 무어(撫御)하고 있지 못한 것이 노출될까 싶어 주문을 꺼린다고 하는가?"

"두 가지 일 중 어느 것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얼핏 듣기에 여러 아문의 기색이 이 조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남왜 방어문제: 풍신수길 사후 일본 내정 탐지의 필요성

4) 선조실록 190권, 선조 38년 8월 25일 정묘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남쪽의 일은 평조신(平調信)이 죽은 뒤로 사기(事機)가 자못 달라졌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남쪽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조신이 죽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경직(景直)이 또 다시 은연중 협박하는 태도가 있으니, 이 뒤에 뜻밖의 요구가 있으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 북도에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남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보니 마치 남쪽은 잊어버린 듯합니다."

"저번에 장계(狀啓)를 보니 요왜(要倭)008)가 '평수뢰(平秀賴)가 폐출되었다.'고 하였다는데, 과연 사실인지 모르겠다."

"수길(秀吉)은 만세의 원수입니다. 가강(家康)은 임진년에 관동(關東)의 군사는 한명도 바다를 건너보내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본디 수길에 비길 바는 아닙니다. 적사(賊使)가 이처럼 오가는데도 저들의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수뢰가 폐출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람을 차출하여 어떤 일을 핑계로 대마도에 들여보낸다면 저들의 내막을 혹시 탐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1606년 8월 6일, <원접사로서 조사를 접대한 대제학 유근을 인견하여 대화하다>⁵⁾

- "중국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한 이튿날 신이 문안하고 들어가 절을 하였더니, 상사가 '어제 귀국 백관들의 정문(呈文)을 보았는데 별다른 사정은 없는가?' 하고, 작은 종이 쪽지에 글씨를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함부로 전하는 말이 「광해군(光海君)의 장인이 상자(相者)와 함께 공모하여 적통(嫡統)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무슨 일인가?' 하기에, 신이 곧바로 응답하기를 '우리 나라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니, 상사가 '내가 전일 이런 말을 듣고 항상 의심하였는데 지금 국왕을 보니 권신에게 견제되지는 않겠다. 어찌 이같은 일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사실을 곧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때 상께서 접대하는 일이 바빠 감히 아뢰지 못하고 다만 한두 대신들에게만 비밀히 말하였습니다."

3. 봉사조선고의 주요 내용

■ 만력 을사 계동 망일(1605년 음력 12월 15일)에 원손의 탄생을 맞아 조선에 조서를 반포 하니, 명령을 받아들여 정사로 임명되어 기린복을 하사받고, 그 일과 뜻, 느낌을 을사 삼수로 적어둔다

- 얼음 싸리기는 모두 녹아 봄 풍광으로 바뀌지니, 잠깐 동안에 환호성이 만방에서 두루 울린다(13)

■ 용봉대

- "당태종이 세운 누각이 있는데, 지금은 철폐되고 돈대를 만들어 지킨다."

- "끝까지 독무(黷武)한 당의 문황, 정요(征遼)하여 제멋대로 하려 했었다.":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이유없는 전쟁으로 비판

- "삼가 덕 베풀은 내빈(來賓: 예를 두터이 하여 손을 불러들이는 것)에서 비롯되니, 성군의 시대에는 좋은 계책 얻었었다."

■ 압구정 (영의정 유춘호=유영경을 위해 짓다): 조명관계 or 봉당정치(동인-북인-소북)?

5)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 8월 6일 임인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 “뜻이 물고기에 있지 않으면 물고기가 즐겁고, 뜻을 갈매기와 함께 잇으면 갈매기가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알 수 있으니 뜻 있음과 뜻 없음은, 장난치며 웃다가 싸움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음/ (중간생략)/ 곧은 낚시 바늘에 장대 없으면 오래 있어도 잡을 수 없지만, 손안에 먹을 거리 있으면 갈매기들 다투어 달려온다/ (중간생략)/ 마음으로 물고기 즐거움을 알아도 남은 내가 아니지만, 갈매기와 친해지면 어찌 꼭 내가 갈매기가 아니라 하겠는가.”

■ 명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역(異域)이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車同軌書同文)

- “봄빛이 이역(異域)이라 더욱 깊고, 강가에 다가선 산세가 중화(中華)를 막아선다/ 만리 먼 곳 수레와 문자 한 집처럼 함께 쓴다.”(53)

- “만 리 강역 나누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75)

- “바다 신은 여전히 밀물 썰물 바쳐 보내니, 강변 마을 영원히 지키며 제주(帝州; 북경)를 호위하리”(109)

- “한 조각 붉은 마음(일편단심)이 만 리 먼 곳에 걸렸다/ 변경 기러기와 강물 물고기가 한 자 흰 비단으로 통하니 동녘 바다와 남녘 하늘이 떨어져 있다 탄식 마소”(111)

- “성덕이 절로 존중되고 물결도 절로 잔잔하니, 만방은 다함께 황풍(皇風) 알아야 마땅하다”

■ 민충단(愍忠壇)을 지나며(118)

- 민충단: 임진왜란 전몰 명군의 혼백에 제사지내던 곳. 평양, 벽제, 한양 등. 선조 26년(1593)에 설치.

-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이자(移咨)를 보니, 평양(平壤)·벽제(碧蹄)·왕경(王京)에 제단을 설치하고 진중에서 죽은 군졸을 해마다 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군사가 만리길에 정역(征役)하다가 죽어 중국 조정에서 제사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막연히 있는다면 정리(情理)에 매우 맞지 않으며 또한 뒤에 오는 장병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⁶⁾

- “동번의 반이 짓밟혔었다/ 밝게 빛나는 항위가 힘차게 펼쳐져서, 누선으로 삼군이 바다 건넜다”

■ 조선을 일컫는 명칭들

- 번봉(藩封), 동방(東邦), 속국(屬國), 동번(東藩), 해국(海國), 봉래(蓬萊), 기봉(箕封), 이국(異國), 도복(島服)

■ 이 월사의 송별시에 화답하다(115)

■ 기자 무덤을 찾아뵙다(120)

6)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24일 갑진 10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